



## 투명한 미니멀 구조로 선보이는

### 예거 르쿨트르의 애틀모스 인피니트

애틀모스 클락은 90여 년 전에 공개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시계 분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메커니즘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지만, 독창적인 형태가 빛어내는 강렬한 미학적 정체성을 더해 타임피스를 진정한 예술 작품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2022년, 예거 르쿨트르는 매혹적인 디자인의 애틀모스 인피니트로 애틀모스 클락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합니다.

- 투명함과 순수한 라인을 지닌 현대 예술 작품으로 재해석된 21세기 애틀모스
- 거의 보이지 않는 지지대 덕분에 모든 각도에서 메커니즘이 실린더 형태의 글래스 캐비닛 안에 자유롭게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928년,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형태의 애틀모스 클락이 탄생했습니다. 클락은 주변 온도의 경미한 변화만으로도 에너지를 얻어 별도의 조정 작업 없이 독자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비밀은 멤브레인을 통해 시계를 구동하는 스프링에 연결된, 가스를 채운 밀폐형 캡슐에 있습니다. 주변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가스가 팽창하면서 아코디언의 바람통처럼 멤브레인이 '숨을 쉬는듯' 스프링이 와인딩됩니다. 애틀모스 클락은 에너지 소비량도 매우 적습니다. 15와트 백열 전구 한 개에 불을 켤 수 있는 것과 같은 양의 에너지만으로도 애틀모스 클락 6천만 개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섭씨 1도의 변화만으로도 이를 동안 충분히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환경에서 멈추지 않고 작동합니다.

투명한 미니멀 구조를 강조한 새로운 디자인은 현대적이면서도 애틀모스 본연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깔끔한 모던한 라인이 돋보입니다. 21세기 클래식 아르데코 "글래스 박스" 캐비닛의 우아한



디자인을 재해석한 애트모스 인피니트의 실린더형 글래스 캐비닛은 초창기 모델의 둥근 돔형 글래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애트모스는 무브먼트 형태를 통해 미학적 아이덴티티를 완성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글래스 캐비닛이 한눈에 고스란히 들어오며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형태의 애트모스 메커니즘과 그 안에 담긴 가치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디자인 책임자 리오넬 파브르가 설명합니다.

애트모스 메커니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글래스로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클락을 작동시키는 벨로우, 체인, 기어 등을 포함한 전체 메커니즘을 가감 없이 드러냅니다.

미니멀 스타일은 클락의 기능에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570 은 시간-분을 표기하는 무브먼트입니다. 구조 역시도 필수적인 요소에 집중하되, 브러싱 처리된 외관, 폴리싱 처리된 테두리, 고프 드 제네브 스트라이프와 같은 최고급 워치메이킹 마감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블랙 컬러의 래커 다이얼은 폴리싱 처리된 바통형 인덱스가 적용된 두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커니즘의 실버 로둠 마감과 일치하는 핸드도 장식되어 있습니다. 메탈 외부 링에는 작은 톱니 모양의 도트로 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형태는 무브먼트 바디 아래에서 특정한 리듬에 따라 천천히 앞뒤로 회전하는 고리 모양 밸런스의 원형 인덴테이션(indentation)과 닮아 있습니다.

모던한 클래식 클락의 정수를 담고 있는 애트모스 인피니트는 애트모스 본연의 철학은 그대로 유지하되, 모든 필수 기능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합니다.

## 상세 정보

### 애트모스 인피니트

크기: 직경 215mm x 높이 253mm

칼리버: 반영구적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570

진동 수: 고리 모양 밸런스, 60 초 진동

기능: 시, 분



**캐비닛: 실린더형 글래스**

**제품 번호: Q5405311**

---

#### **에트모스 소개**

1928년에 탄생한 에트모스는 다른 시계와는 차원이 클락입니다. 기존의 에너지원이나 태엽 감기 없이 수 세기 동안 작동하며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발명품으로, 에트모스의 메커니즘은 일상적인 기온 변동에 의해 구동됩니다. 섭씨 1도의 변화만으로도 이틀 동안 충분히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이후 예거 르쿨트르는 매뉴팩처의 워치메이킹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독창적인 재능을 활용해왔으며, 마침내 에트모스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에트모스 II의 아르데코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글래스 큐브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클래식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거 르쿨트르는 유명 디자이너 및 장인과 협력하여 에트모스 스페셜 에디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jaeger-lecoultre.com](http://jaeger-lecoultre.com)**